

『줄리어스 시저』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연설을 중심으로 -

- I. 『줄리어스 시저』 개괄
- II. 브루터스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1. 브루터스의 연설
  - 2. 브루터스의 설득과 수사
- III. 안토니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1. 안토니의 연설
  - 2. 안토니의 설득과 수사
- IV. 맺음말



## 『줄리어스 시저』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연설을 중심으로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sup>1)</sup>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 로마 공화정 말기, 브루터스라는 인물을 포함한 공화정 옹호파 의원들이 최고 집정관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암살한 뒤 파멸하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비극이다.<sup>2)</sup>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에 속한다. 특히 이 작품은 제3막 2장 속 시저 장례식에서 벌어지는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연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 암살자가 연설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싶더니, 시저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자가 뒤이어 연설을 한 후, 정세가 순식간에 반전되어 암살자가 다시 배신자로 전락하는 이 역전극은 수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sup>3)</sup> 이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수사학(Rhetoric)』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로 제시한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sup>4)</sup>를 중심으로 『줄리어스 시저』 속 브루터스와 안토니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인물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줄리어스

1) - 이 작품의 정확한 창작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598년이나 1599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요 출처는 1597년 영국 번역가 노스(North)가 영문 번역해 출판한 플루타르크(Plutarch)의 『영웅전』이다. 플루타르크는 로마 제정기의 시인으로 그리스-로마 시대 인물들의 삶과 행적을 다룬 전기 『영웅전』을 남겼다. 셰익스피어는 이 출전으로부터 『줄리어스 시저』의 골격을 가져오고 있다 [한정주, 2005, 『영웅격정사』, (포럼), 34쪽, Shakespeare, W., 2011, 『줄리어스 시저』, 김중환 역(지식을 만드는 지식), 해설 203쪽].

- Julius Caesar는 영어 발음으로는 ‘줄리어스 시저’, 라틴 발음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지만, 관용에 따라 영어식으로 적었다. 이외의 등장인물 이름도 영어식으로 적었음을 밝힌다. 또한 영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이 글에서 참조하는 『줄리어스 시저』 번역서를 기준으로 했다.

2) 권오숙, 2013, “낮선 문학 가깝게 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3920&categoryId=1078>(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3) 이상범, 2004, “브루터스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0>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4)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기법과 메시지 구성,”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제2호, 38-45쪽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글의 해당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시저』 작품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 I. 『줄리어스 시저』 개괄

역사상으로 보면 기원전 60년에는 크라서스, 폼페이, 시저 이렇게 3명이 로마를 통치했다.<sup>5)</sup> 그러나 시저는 기원전 53년에 크라서스를, 기원전 48년에 폼페이를 격파하고 로마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로 부상한다. 기원전 45년 폼페이의 아들들까지 제거한 시저는 그 이듬해인 기원전 44년 스스로 ‘종신 독재관’ 자리에 올라, 500년 전통의 로마 공화정 기반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러나 1인 독재를 실현한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공화정에 익숙한 로마인들이 ‘황제’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각종 특권과 특전이 그에게 부여되었고 이와 같이 권력이 한 몸에 집중된 결과, 시저는 황제의 자리를 탐내는 자로 의심 받게 되어 종신 독재관에 오른 같은 해 3월 15일 암살당한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가 폼페이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기원전 45년부터 시저의 오른팔 안토니가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 일당을 물리치는 기원전 42년까지의 로마 역사를 다루고 있다.

총 5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제1막과 제2막에서 브루터스를 포함한 반(反) 시저 주의자들이 독재 정치에 반대하여 시저의 암살을 모의한다.<sup>6)</sup> 처음에는 시저를 살해할 생각이 없던 브루터스는 시저가 황제가 될 경우 로마인들이 일인 전체정치로 신음할 것이라는 한 암살 공모자의 말을 듣고 설득당해 암살에 가담하게 된다. 제3막에서는 암살이 벌어지고, 브루터스 일파가 로마를 잠시 장악하나, 시저 장례식 때 안토니가 연설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암살자들을 로마에서 축출한다. 시저의 심복이었던 안토니가 시저 장례식에서 연설할 수 있었던 것은 군중들 앞에서 시

5) - 이 문단은 Shakespeare, W.(2011), 9쪽의 옮긴이 주석, 한정주(2005), 345쪽, “율리우스 카이사르,”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005&cid=40942&categoryId=34317> (검색일: 2014. 4. 28.)을 참조했다.

- 이렇게 3명의 실력자가 동맹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한 정치 형태를 두고 삼두정치(三頭政治)라고 한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출현했다.

6) 이 문단은 Shakespeare, W., 2005, 『Julius Caesar』, 한국셰익스피어학회·조광순 작품해설 및 주석(건국대학교 출판부) 책소개 부분을 참조했다.

저 암살 파(派)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제4막에서는 안토니와 시저의 후계자 옥타비우스, 그리고 시저 파(派) 장군 레피두스가 모여 시저 암살 파 중 처형자 명단을 작성한다. 제5막에서는 브루터스 일파의 군대가 안토니·옥타비우스의 군대와 싸우는 내용이 전개된다.

작품은 크게 봤을 때 시저 암살 사건을 둘러싼 브루터스와 안토니 두 인물의 대결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브루터스는 로마 공화정을 지지하는 고결한 정치가로 로마인들의 존경을 받지만 시저가 독재 군주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가 자신의 절친한 벗임에도 그를 죽이는 인물로 재현되어 있다. 안토니는 시저의 측근 장수로 시저가 암살 당한 후 시저 암살 파를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인물로 나온다.<sup>7)</sup>

두 인물의 대결은 제3막 2장 시저 장례식에서 진행되는 이들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브루터스는 자신이 시저를 살해한 대의명분을 밝혀 성난 군중을 설득하려고 하고 군중은 그의 연설에 설득당한 것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뒤이어 안토니가 연단에 오르는데 그는 시저 암살 사건에 대해 민중들을 설득하여 브루터스 일파에 대항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의 연설 이후 다시 시저와 안토니의 편으로 돌아선다.

대중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이들의 각 연설<sup>8)</sup>에는 어떠한 설득과 수사가 나타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브루터스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1. 브루터스의 연설

시저 장례식에서 군중들은 시저를 암살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하라고 외친다. 그 앞에 선 브루터스는 자신이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7) 권오숙, 2013, “낮선 문학 가깝게 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3920&cid=267&cate\\_goryId=1078](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3920&cid=267&cate_goryId=1078)(검색일: 2014. 4. 25.)

8) 연설 원문은 Shakespeare, W., 2005, 『Julius Caesar』, 한국세익스피어학회·조광순 작품해설 및 주석(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글 번역은 Shakespeare, W., 2011, 『줄리어스 시저』, 김종환 역(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인용했다.

Romans, countrymen, and lovers! hear me for my cause, and be silent, that you may hear. Believe me for mine honour, and have respect to mine honour, that you may believe. Censure me in your wisdom, and awake your senses, that you may the better judge. If there be any in this assembly, any dear friend of Caesar's, to him I say, that Brutus' love to Caesar was no less than his. If then that friend demand why Brutus rose against Caesar, this is my answer: Not that I lov'd Caesar less, but that I lov'd Rome more. Had you rather Caesar were living and die all slaves, than that Caesar were dead, to live all freemen? As Caesar lov'd me, I weep for him; as he was fortunate, I rejoice at it; as he was valiant, I honour him; but, as he was ambitious, I slew him. There is tears for his love; joy for his fortune; honour for his valour; and death for his ambition. Who is here so base that would be a bond-man? If any, speak; for him have I offended. Who is here so rude that would not be a

로마 시민, 동포, 그리고 친구 여러분. 시저를 죽인 이유를 들어 주시오. 조용히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명예를 두고 날 믿어 주시고, 날 믿기 위해 내 명예를 존중해 주시오. 현명하게 날 판단해 주시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성을 일깨우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시저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소. 시저에 대한 브루터스의 우정도 그 사람의 우정에 못지않다고. 그럼 그 친구는 물을 거요 왜 내가 시저에게 대항해 일어섰느냐고? 내 답은 이러하오.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시저가 살고 여러분 모두가 노예로 살기를 바랍니다까? 시저가 날 사랑했기에 난 그를 위해 울었고, 시저가 행운을 차지했기에 난 그걸 기뻐했고, 시저가 용감했기에 난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저가 야심이 있었기에 그를 죽였소. 시저의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이, 행운에 대해서는 기쁨이, 용맹에 대해서는 존경이, 야심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을 뿐. 노예가 되길 원하는 비굴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소? 있다면 말하십시오. 난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셈이오. 진정한 로마인이 되고 싶지 않은 미련한 자가 이 로마에 어디 있겠소? 있다면 말하십시오. 난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셈이오.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비열한 자가 그 어디에 있겠소? 있다면 말하십시오. 난 또한 그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셈이오. 자, 대답을 기다리겠소.

<p>Roman? If any,  speak, for him have I offended. Who is  here so vile  that will not love his country? If any,  speak, for him  have I offended. I pause for a reply.</p> <p style="text-align: right;">(제3막 2장 13-34)</p>	
--	--

## 2. 브루터스의 설득과 수사

연설에서 브루터스는 시저를 죽인 이유에 대해 ‘시저가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브루터스는 정작 시저가 야심이 있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의 연설 이후 시민들은 “브루터스 만세!”(제3막 2장 48)를 외치며 그의 연설에 동조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학적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브루터스가 ‘명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에토스를 설득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논리적 측면에서 거짓 딜레마의 오류(Fallacy of a False Dilemma)가 시민들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지, 복합 질문의 오류(Fallacy of Complex Question)가 시민들로부터 어떤 대답을 거두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에토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근거들 중 하나로 에토스를 들었다. 에토스란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등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는 사람의 품성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때,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내용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sup>9)</sup>

브루터스는 연설 도입부에서 “내 명예를 두고 날 믿어 주시고, 날 믿기 위해 내 명예를 존중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가 평소 고결한 품성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존경을

9) 강태완, 2010, 『설득의 원리』 (폐가수스), 18쪽.

받던 정치가였음을 감안할 때, ‘명예’라는 단어의 언급은 로마 시민들이 그가 뒤에 말할 연설의 내용을 쉽게 믿도록 만들고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실제로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청중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뿐 아니라 확실성이 없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인 신뢰감을 불러넣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sup>11)</sup> 이러한 에토스의 설득력은 브루터스의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 (2) 거짓 딜레마의 오류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을 높이는 또 다른 근거로 로고스를 들었다. 로고스란 말 자체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브루터스의 연설에는 ‘거짓 딜레마의 오류’라는 논리적 오류<sup>13)</sup>가 나타나 있다.<sup>14)</sup>

원래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sup>15)</sup> 예를 들어 나팔관이 막힌 상태에서 임신했을 때,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나팔관을 제거하면 산모가 죽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게 돼 사람들은 딜레마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거짓 딜레마의 오류는 이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대개는 다양한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택의 범위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제한하고,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거짓 딜레마의 오류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을 보자. 세상에는 혼인, 계약결혼, 동거, 조건부적 탐색결혼, 독신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선택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독신 중 양자택일 하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거짓 딜레마의 오류다. 택일을 강요받

10) 이상범, 2004, “브루터스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0>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11) Aristote, 2007a, 『수사학 I』, 이종우 역(리젠프), 59-60쪽.

12) 강태완(2010), 41-42쪽.

13) 오류(Fallacy)란 올바르지 않거나 타당하지 못한 논증을 말한다. 참고로 논증은 증거나 전제를 통해 결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뜻한다. 어떤 맥락에서는 오류가 누군가에게 올바른 논증인 것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이정일, 2010, 『논증과 논쟁』, (이담북스), 129쪽].

14) 이상범, 2004, “브루터스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0>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15) 다음 두 단락은 이정일(2010), 143-145쪽을 참조했다.

는 사람은 ‘왜 둘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브루터스는 연설에서 “여러분은 시저가 죽고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시저가 살고 여러분 모두가 노예로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 역시 ‘시저가 죽는 것’과 ‘여러분이 노예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가능성 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둘 중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므로 거짓 딜레마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왜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선택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에 대해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들은 로마 시민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 질문은 브루터스가 곤란한 딜레마 상태에서 다른 대안의 부재로 시저를 죽인 거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 (3) 복합 질문의 오류

또한 이 연설에는 ‘복합 질문의 오류’도 나타나 있다.<sup>16)</sup> 복합 질문의 오류는 질문자가 ‘질문 속에 숨겨진 어떤 결론이 참’이라고 전제하여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이 질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하든 부정하는 대답을 하든 결국 그 숨겨진 전제를 인정하는 꼴이 될 때 발생한다.<sup>17)</sup> 예컨대 “그대는 이제 부인에 대한 폭행을 그만두었는가?”라는 질문을 보자. 이 질문에 “네”하면 “이전에는 폭행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만 두었다”가 된다. “아니오”라고 답하면 “지금도 폭행하고 있다”는 답이 된다. 부인을 계속 폭행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복합 질문(Complex Question)이기 때문이다.

브루터스는 연설 후반부에서 “노예가 되길 원하는 비굴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소?”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던졌다. 이 질문에는 “시저가 살아 황제가 됐다면 당신들은 그의 노예가 됐을 거요”라는 전제가 숨겨져 있다. 또 브루터스는 “진정한 로마인이 되고 싶지 않은 미련한 자가 이 로마에 어디 있겠소?”라고 물었다. 이 질문 역시 “시저가 살아 황제가 됐다면 그대들은 진정한 로마인이 될 수 없었을 거요”라는 전제가 숨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브루터스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비열한 자가 그 어디에 있겠소?”라고 물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시저를 살려두는 것은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이오”라는 맥락의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16) 이상범, 2004, “브루터스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0>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17) 복합질문의 오류에 대한 개념과 사례 등은 이정일(2010), 141-143쪽, Aristote, 2007b, 『소피스트적 논박』 김재홍 역(한길사), 186쪽을 참조했다.

첫 번째 질문을 예로 들면, ‘시저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을 전제로 브루터스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시민은 겉으로 드러난 질문 -노예가 되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만 답하게 되고, 그 결과 브루터스의 주장(전제)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초래된다. 브루터스가 마치 시민의 의견을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질문에만 “없소, 브루터스, 아무도 없소”(제3장 2막 35)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 브루터스는 저 첫 번째 질문 전에 “시저가 살아 황제가 됐다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생략함으로써 시저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고 시민들도 단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답변을 요구받는 사람이 이 복합 질문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숨겨진 전제를 찾아 단정 짓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시민은 “시저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을 거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브루터스에게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 Ⅲ. 안토니의 연설에 나타난 설득과 수사

#### 1. 안토니의 연설

브루터스의 연설이 끝나고 안토니가 뒤이어 연단에 오른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장악한 시저 암살 파(派)에 대해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군중들은 바로 전 브루터스의 연설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안토니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Friends, Romans, countrymen, lend me your ears!

I come to bury Caesar, not to praise him.

The evil that men do lives after them,

The good is oft interred with their bones;

So let it be with Caesar. The noble Brutus

Hath told you Caesar was ambitious.

친구여, 로마인이여, 동포들이여. 제 말을 들어 주시오. 난 시저를 묻으러 온 것이지 그를 칭찬하러 온 게 아니오.

인간의 악행은 죽은 후에도 계속 남지만

인간의 선행은 뼈와 함께 땅에 묻힙니다.

시저 역시 마찬가지요. 고결한 브루터스는

시저가 야심이 있다고 했소.

If it were so, it was a grievous fault,  
 And grievously hath Caesar answer'd it.  
 Here, under leave of Brutus and the rest—  
 For Brutus is an honourable man,  
 So are they all, all honourable men—  
 Come I to speak in Caesar's funeral.  
 He was my friend, faithful and just to me;  
 But Brutus says he was ambitious,  
 And Brutus is an honourable man.  
 He hath brought many captives home to Rome,  
 Whose ransoms did the general coffers fill;  
 Did this in Caesar seem ambitious?  
 When that the poor have cried, Caesar  
 hath wept;  
 Ambition should be made of sterner stuff:  
 Yet Brutus says he was ambitious,  
 And Brutus is an honourable man.  
 You all did see that on the Lupercal  
 I thrice presented him a kingly crown,  
 Which he did thrice refuse. Was this ambition?  
 Yet Brutus says he was ambitious,  
 And, sure, he is an honourable man.  
 I speak not to disprove what Brutus spoke,  
 But here I am to speak what I do know.  
 You all did love him once, not without cause;  
 What cause withholds you then, to mourn  
 for him?  
 O judgment! thou art fled to brutish beasts,  
 And men have lost their reason. Bear with me,  
 My heart is in the coffin there with Caesar,  
 And I must pause till it come back to me.

(제3막 2장 73-107)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히 서글픈 결점이며 가슴 아프게도 시저는 그 대가를 치렀소. 여기 고결한 브루티스와 그 밖의 분들 허락 아래 말씀드립니다. 브루티스 공은 고결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 역시 고매한 분들입니다. 난 시저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러 왔습니다. 시저는 내 친구며, 내게 성실하고, 공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브루티스는 시저가 야심이였다고 말하고 있소. 브루티스는 고결한 분이시오. 시저는 수많은 포로들을 로마에 데리고 왔으며, 그 포로들의 석방 보석금으로 국고를 채웠소. 어찌 이것이 시저가 야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울면 시저도 울었습니다. 야심이란 분명 이보다 더 냉혹한 성질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브루티스 공은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브루티스 공은 고결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셨습니다. 루퍼칼 축제에서 내가 세 번이나 시저에게 왕관을 바쳤지만, 그는 세 번이나 그 왕관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야심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브루티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브루티스 공은 분명 고결한 분이오. 브루티스 공의 말을 반박하려는 건 아니오. 나 안토니는 다만 내가 이는 걸 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요. 여러분 모두 한때 시저를 사랑했소.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를 사랑했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길 주저하는 겁니까? 오, 분별력이여! 그대는 야수에게 도망쳐 버리고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구나. 나 안토니를 용서하십시오. 내 심장은 시저와 함께 관 속에 있소. 심장이 내게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 2. 안토니의 설득과 수사

안토니는 연설을 통해 시저가 야심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득하려고 한다. 이미 브루터스의 연설에 마음을 빼앗긴 군중들을 다시 자기편으로 만든 안토니의 연설에는 어떠한 설득과 수사가 나타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그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활용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로고스를 활용한 생략삼단논법 및 예증법<sup>18)</sup>이 사용된 대목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1)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안토니도 브루터스와 마찬가지로 에토스를 설득의 방편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브루터스의 에토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에토스를 높이는 고차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sup>19)</sup> 즉 연설 도입부에서 안토니는 고결한 브루터스가 시저에게 야심이 있었다고 했으니 사실일 것이라며 브루터스에 경의를 표하는 척 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에토스를 높이는 방법인 것이다. 이미 이전 연설에 마음을 빼앗긴 청중을 앞에 두고 브루터스를 비판하거나 시저를 변호했다면 야유나 욕설을 유발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안토니의 연설에 나타난 로고스와 파토스를 살펴보겠다. 로고스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 자체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증명하는 것이고,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여 그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다.<sup>20)</sup> 연설에서 안토니는 자신이 봤던 시저의 살아생전 모습 -시저가 야심을 품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 시저에게 야심이 있었다는 브루터스의 말을 대조시켜, 브루터스의 주장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로고스이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sup>21)</sup>이 파토스이다. 파토스 측면에서 보면, 연설 내내 눈물 흘리지 않고 이성적인 어조로 일관했던 브루터스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18) '생략삼단논법'과 '예증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2013), 43-45쪽의 '로고스' 부분에서 다룬 바 있다.

19)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관한 다음 세 단락은 Joseph, Sister M., 1947, *Shakespeare's Use of the Arts of Language* (Paul Dry Books), pp. 283-284, 이상범, 2004, "안토니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1>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20) 강태완(2010), 41-42쪽.

21) 그가 우는 것은 시민 2의 대사(제3막 2장, 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셰익스피어 연구로 유명한 조세프 수녀(Sister Miriam Joseph)<sup>22)</sup>에 의하면, 그가 우는 동안 로마 시민들에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

1. Citizen	Methinks there is much reason in his sayings.	[ Logos ]
2. Citizen	Poor soul! his eyes are red as fire with weeping.	[ Pathos ]
3. Citizen	There' s not a nobler man in Rome than Antony.	[ Ethos ]
시민 1.	안토니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소.	
시민 2.	가연은 분! 울어서 저분 눈이 불덩이처럼 빨개졌군.	
시민 3.	로마 전체에서 안토니만큼 고결한 분은 없어.	
(제3막 2장 108, 115, 116)		

## (2) 생략삼단논법

한편 안토니는 “내가 세 번이나 시저에게 왕관을 바쳤지만, 그는 세 번이나 그 왕관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야심이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데 이는 생략삼단논법을 활용한 표현이다.<sup>23)</sup> 생략삼단논법이란 삼단논법에서 두 전제들 중 하나 혹은 결론을 생략한 것으로, 원래 삼단논법이라면 ‘왕관을 거절하는 자는 야심이 없다’(대전제) → ‘시저는 왕관을 거절했다’(소전제) → ‘따라서 시저는 야심이 없다’(결론)라는 식으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안토니의 대사에는 ‘왕관을 거절하는 자는 야심이 없다’는 대전제가 생략돼 있어 그의 주장은 생략삼단논법을 활용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조세프 수녀에 의하면, 이렇듯 하나의 전제가 생략된 생략삼단논법의 경우 청자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생략된 전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결론

22) 조세프 수녀(Sister Miriam Joseph, 1898-1982)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비교문학(English and Comparative Literature)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30년 동안 Saint Mary's College에서 영문학 교수로 근무했다. 그녀의 저서로는 이 글에서 참조하는 책 *Shakespeare's Use of the Arts of Language* 이외에도 *The Trivium: The Liberal Arts of Logic, Grammar, and Rhetoric* [Trivium이란 논리, 문법, 수사를 가르치는 중세 대학의 기본 과정, 삼학(三學)을 말한다] 등이 있다.

23) 이 단락의 내용은 Joseph, Sister M. (1947), pp. 177-178을 참조했다.

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 연설을 들은 시민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안토니가 의도한 결론 - 시저는 야심이 없다 - 에 너무나 쉽게 도달하고 있다.

4. Citizen Mark'd ye his words? He would not take the crown,  
Therefore 'tis certain he was not ambitious.

시민 4. 저분 말을 들었소? 시저가 왕관을 거절했다는군요.  
그럼 시저가 야심을 품지 않은 게 분명해.

(제3막 2장 112-113)

마찬가지로 “시저는 수많은 포로들을 로마에 데리고 왔으며, 그 포로들의 석방 보석금으로 국고를 채웠소. 어찌 이것이 시저가 야심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말입니까?”에도 생략삼단논법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보석금을 국고에 채우는 자는 야심이 없다’라는 대전제가 생략돼 있는 셈이다.

이 논법은 ‘생략’으로 인해 청자가 상대방 주장이 확실히 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sup>24)</sup> 이런 측면을 극복하려면 생략삼단논법을 사용한 상대방 주장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구별법은 숨겨진 전제를 찾아서 이것이 보편타당한지 살핀 후 만약 보편타당하다면 논증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순 주장 내지 오류로 판단하는 것이다. 안토니의 생략삼단논법에서 생략된 전제는 보편타당한 면이 있으나 반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시민들은 시저가 ‘겉으로 왕관은 거절하나 야심이 있는 자’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3) 예증법

또 안토니의 연설에는 위에서 살펴본 생략삼단논법과 더불어 예증법이 나타나 있다.<sup>25)</sup> 예증법이란 잘 알려진 구체적인 예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논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

24) 이 단락의 내용은 김용규, 2007, 『설득의 논리학』, (웅진지식하우스), 53-62쪽을 참조했다.

25) 이 단락의 내용은 김용규(2007) 53쪽, 이상범, 2004, “안토니의 수사학,” 이상범 칼럼,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45731> (검색일: 2014. 4. 25.)을 참조했다.

명하게 그려지고 추상적인 표현에서보다 감정이입을 쉽게 하게 된다. 시민들은 안토니가 열거한 예증들이 떠올리게 하는 ‘보석금으로 국고를 채우고’, ‘가난한 자를 위해 눈물 흘리고’, ‘왕관을 거절하는’ 시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이러한 예증은 안토니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안토니의 연설 이후 시민들은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 일파를 반역자라고 지칭하고 “반역자는 한 놈도 살려 두지 마라”(제3막 2장 205)라고 외치며 폭동을 일으킨다. 이후 시저 암살에 가담했던 자들은 도망치고 결국에는 안토니에게 패배하는 운명을 맞이한다.

#### IV. 맺음말

『줄리어스 시저』 속 브루투스와 안토니의 설전에 드러난 설득과 수사를 살펴보았다. 브루투스는 자신의 에토스를 설득에 활용했고, 로마 시민들에게 딜레마 상황에 처한 것처럼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졌으며,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을 생략함으로써 시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안토니는 브루투스의 에토스에 기대어 자신의 에토스를 높였고, 눈물로 파토스를 자극했다. 또 삼단논법에서 전제를 생략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으며, 시저가 한 행동들을 열거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셰익스피어를 통해 재현된 브루투스와 안토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등장인물로 평가받는다.<sup>26)</sup> 올해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문화계 전반에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셰익스피어를 두고 “한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극찬한 바 있는 영국의 극작가 벤 존슨(Ben Jonson)의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26) Shakespeare, W.(2011), 해설 211쪽.